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의궤 특별전 개막

국립중앙박물관서 내달 18일까지 일반 공개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일반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특별전시회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박물관 상설전시실의 특별전시실에서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개막했다.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에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 가운데 풍정도감의궤를 비롯한 귀환 의궤 71점을 포함해 조선 후기 강화도 지도와 외규장각 모습을 담은 '강화부 궁전도' 등 유물 165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자칫 의궤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도서전' 성격을 탈피하고자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했다. 일례로 66세에 이른 영조가 첫 번째 왕비와 사별한 뒤 15세 정순왕후를 새로운 왕비로 맞이하는 의식을 다룬 '가례도감의궤'를 대형 영상물로 재구성해 선보이기도 했다. 김영나 관장은 "그림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 등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재구성하는 영상기법은 최근 상하이엑스포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최신 기법을 적극 활용해 생동감 있는 전시를 꾸미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외규장각 의궤의 여러 면모를 6부로 나눠 소개한다.

1부에서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 의궤의 개념과 구성을 설명하고, 정조대에 강화도 행궁(行宮)에 외규장각을 완공하여 어람용 의궤 등 왕실의 중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 이밖에 동시에 제작한 어람용과 분상용의 의궤를 나란히 전시하여 표지, 본문, 도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부부터 6부까지는 외규장각 의궤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전시하였다. 2부의 주제는 '왕권과 통치'로서 의궤 속에 보이는 조선시대 통치 이념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종묘제례, 친경, 영건, 녹훈 관련 의궤를 전시한다. 특히 유일본인 '보사녹훈도감의궤' (1682년, 속종 8) 중에 한글 문장이 적혀 있어, 의궤에 한글이 기록된 희귀한 사례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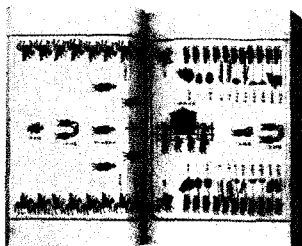
3부의 주제는 '나라의 경사'로서 왕실의 혼례, 책봉, 존호 등에 관한 의식을 기록한 의궤를 다룬다. 조선시대에는 의식 및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기구인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하부의 작은 조직들을 구성하여 국가의 경사스런 행

사를 치렀다. 의궤를 통해 제작물품의 목록과 재료, 장인 명단, 도설, 행렬 그림인 반차도를 확인할 수 있다.

4부의 주제는 '왕실의 장례'이다. 조선시대 왕실 의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죽음과 관련된 의식이었다. 특히 왕과 왕비의 장례는 국장(國葬)으로서, 임종과 장례 준비, 무덤의 조성, 장례 행렬, 삼년상 동안의 제사 등이 모두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 의궤가 전시된다.

5부의 주제는 '추모와 기억'으로 3년상을 마친 후 혼전의 신주를 종묘로 모시는 부모,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에게 일생을 함축한 이름을 올리는 시호, 왕의 초상을 그리는 영정 제작 등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선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추모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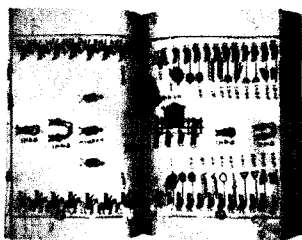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6부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 과정을 짚어본다. 이를 위하여 병인양요 때 참전했던 프랑스 해군 쥐베르의 기록 등 관련 서양서들이 다수 소개된다.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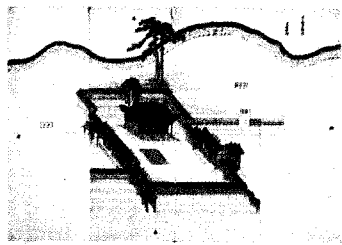
1725년(영조 1) 3월, 효장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어람용 의궤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로 7세에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10세로 세상을 떠났다.

어람용 의궤로 종이는 고급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였고 인찰선(印札線)은 붉은 선을 직접 그었다. 또한 붓으로 직접 형태를 그린 후 다양한 안료로 칠했다.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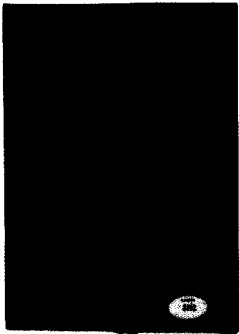
1725년(영조 1)에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의 분상용 제작됐다. 어람용은 상?하 2책이 나뉘어져 있으나 분상용은 1책으로 합쳐져 있다. 도장을 찍어 반복되는 인물을 배치하고 색상의 큰 변화없이 인물과 사물을 칠하여 어람용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



강화부 궁전도 江華府宮殿圖 (외규장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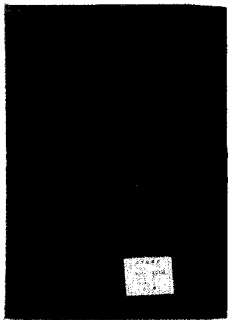
19세기 후반에 제작됐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강화부 행궁 주변의 전각들을 그린 4폭짜리 지도로 제2쪽에 어람용 의궤의 보관처였던 외규장각이 그려져 있다.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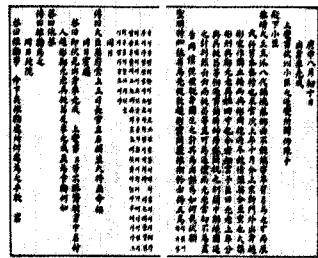
1849년(철종 즉위)에 어람용의궤로 제작됐다. 헌종이 승하한 후 6월부터 11월까지 경릉의 조성 과정을 정리한 의궤 2책 중 상책이다. 원 표지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람용 의궤 표지의 재료와 장정 방법을 알 수 있다. 초록색 비단으로 표지를 싸고 낫쇠로 변철(邊鐵)을 대고 5개의 박을못(朴乙釘)으로 고정시켰으며, 박을못 밑에 등근 국화무늬판(菊花瓣)을 대어 제본했다. 변철의 중앙에는 등근 고리를 달았다.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1849년(철종 즉위)에 제작됐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다.

표지에 '오대산사고상(五臺山史庫上)'이라 쓰여 있어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던 분상용 의궤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제작한 어람용 의궤와는 달리 홍포로 표지를 싸고 변철과 박을못 및 원환(圓環)을 모두 시우쇠[正鐵]로 만들었다. 박을못은 3개다.



보사녹훈도감의궤 保社錄勳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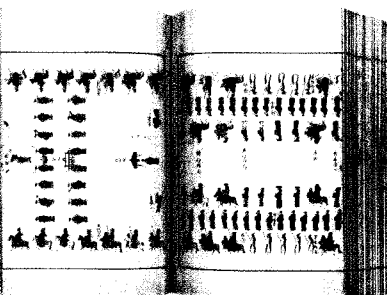
1682년(숙종 8)에 제작됐다. 1680년(숙종 6) 허견(許堅) 등의 역모 사건을 막은 신하들에게 공신의 칭호를 내린 과정을 기록한 의궤다. 그 중 3등 공신이었던 정원로(鄭元老)는 역모의 공모자로 몰려 공신에서 삭제되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한글 세주(細註)가 있다.

한글 세주 내용

시절이 매우 수상하니 공명에(헛된 명성에) 뜻이 없어 조그만한 몸이 지쳐함이 어려워라.

두어라 심산공곡으로(깊은 산 험한 골짜기로) 자취 없이 가리라.

이 노래를 지난 해 조반이 지어 소신(이원성)을 주어서 괴이하게(이상하게) 여겼더니, 이번 이 말씀할 때 그 노래가 뜻이 있는 노래인줄 알았다 하더이다. 그리하옵거늘 그럴던줄 어이 알리 하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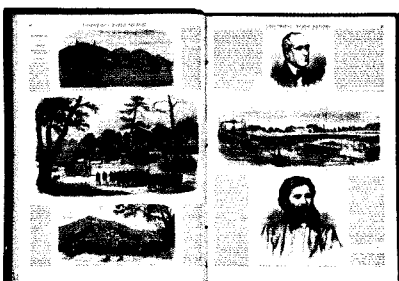
숙종인현왕후기례도감의궤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1681년(숙종 7)에 제작됐으며, 숙종이 인현왕후를 계비로 맞이한 혼례식 과정을 기록한 의궤다.

화보 L'illustration

1867년 제작됐으며, 명지대학교 LG연암문고가 소장하고 있다.

병인양요에 참전했던 프랑스 해군 주베르(M. H. Zuber)가 기고한 1867년 1월 19일, 26일 기사인 'Expédition de Corée'에 당시 프랑스군의 침략과정과 전투상황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외규장각으로 추정되는 건물 앞을 행군하는 프랑스군의 모습이 담긴 스케치가 있다.



수빈회경원원소도감의궤 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1822년 12월부터 1823년 3월까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현목수빈 박씨(顯穆綏嬪 朴氏, 1770~1822)의 묘소, 회경원을 조성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다.

상·하로 이루어진 이 의궤의 상권은 1993년 9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직접 전달하였고, 하권은 2011년에 외규장각 의궤 296권과 함께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